**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1**

**창세기 3장 – 타락**

창세기 3   
장 1. 역사에서의 위치  
 1. 즉 , “역사 속의 그 위치.” 창세기 3장은 확실히 성경과 모든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죄에 빠지면서 죄가 창조된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의 비극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죄가 본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상한 조합에 대한 신비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죄와 비참함과 고통과 죽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자연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온 것은 가을이다   
  
2. 가을의 세부사항 a. 테스트의 성격

2. "가을의 세부 사항"입니다. 개요에 6개의 하위 항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a는 "테스트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일을 따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수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성향을 따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선택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앞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 책의 *우리의 합리적인 믿음은* 여러분의 참고문헌 중 세 번째, 9페이지에 있습니다. Herman Bavinck 1956 페이지 218. 이것은 Bavinck의 네 권의 *Reformed Dogmatics* 중 한 권의 부분 번역입니다 . 책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 『 *우리의 합당한 믿음』 이라는 제목의 한 권을 부분 번역한 것입니다* . 218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견습 명령의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바로 지금 이 특별한 나무를 먹는 것이 금지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이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헤아리고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기초하여, 그들의 의무에 대한 순수한 존중에서 나오는 순전한 순종으로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일컬었느니라.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자의적이고 자급자족적으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무였습니다. 아니면 그가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허락하고 그것을 지키겠느냐 하였느니라.” 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깨뜨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의 성격이었습니다.   
  
비. 뱀 ㄴ. 그것은 "뱀"입니다. 우리는 타락에 아담과 이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 즉 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판되지 않은 일부 강의 노트에서 존 머레이(John Murray)는 뱀을 “유혹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바로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는 뱀이 있는데 종종 놀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화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까? 정말로 말하는 뱀이 있었나요? 나는 앞서 존 깁슨이 쓴 창세기에 관한 일일 연구 성경 시리즈에서 에덴동산에 관해 읽어 주었습니다. 여기 9페이지, 121페이지에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는 그것을 단순히 포물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뱀에게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이 모든 것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에 대해 들었던 것은 그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어떤 들짐승보다 가장 교묘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이다. ”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폄하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확실히 배운 것과는 다릅니다. 동물은 우화로만 말하지만 우화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인간 본성의 기이함과 약점에 대한 논평입니다. 그곳에 서식하는 여우와 늑대, 사자와 암탉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성격 유형이나 특성, 교활함, 경솔함, 자랑, 속기 쉬운 성격 등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학자가 되는 이점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중세 시대의 전형적인 유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다른 많은 우화처럼 재미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이 논평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종의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까마귀가 맨 꼭대기 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에게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그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현명한 늙은 까마귀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멍청한 까마귀!' 여우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은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와 짐승이 다시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나요? 저와 같은 탈무드 학자라면 메시아가 오시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여우가 까마귀와 함께 누울 것이며 영원히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서서 다정하게 말하고 있을 때,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우는 겁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여우!' 까마귀가 나무에서 기분좋게 울어댔다. '당신은 탈무드 학자이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여우는 덤불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화를 들으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 시대의 히브리인들도 자신들의 우화를 가지고 뱀이 왔을 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장면은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화는 아니지만, 이 지점에서 우화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솝 우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요? 나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성경을 고후서에서 읽은 성경과 비교한다고 생각합니다. 11: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단순한 견해에서 떠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또 다른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하와 다음으로 아담이 먼저 났으되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것은 뱀을 언급하지 않고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뱀이었는가? 그리고 저는 여기에 관련된 뱀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합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머레이(John Murray)와 제가 앞서 언급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남성과 비슷하고 아마도 남성보다 뛰어난 지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지능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순히 뱀과 관련된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뱀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읽어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뱀과 사탄에게 저주가 임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살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 곧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는 로마서 16:20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를 결박하여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뱀이 말하고 있었지만 그를 통해 말하기 위해 뱀을 활용한 더 높은 능력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발람의 엉덩이를 사용하신 민수기의 상황과 같은 종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하는 동물은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접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창세기 3장과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발람의 당나귀를 사용하고 사탄이 뱀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글쎄, 나는 다음 문구가 아마도 뱀의 형태를 한 사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지만 뱀은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더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뱀을 다른 동물들과 함께 들짐승으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무엇 입니까? 영적인 존재, 아마도 타락한 천사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때때로 인간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뱀의 형상을 취하셨다면 뱀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절로 내려가면 “네가 이같이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땅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배는 갈 것이다.” 정말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흙 속을 기어다니고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먹는 뱀의 사랑스러운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는 것 같으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동물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추락 전 상황에서 오늘날 뱀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뱀은 저주에 의해 형태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모든 가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갈지니라.” 그게 무슨 뜻이야? 어떤 종류의 신체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그 동물의 또 다른 특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뱀은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이었기 때문에 뱀이 와서 그에게 말했을 때 아담조차도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교활했습니다. "미묘한"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아룸( *arum)* '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유리한 의미와 불리한 의미로 모두 사용됩니다. 즉, 신중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교활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선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이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고 말할 때, 그 생각은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매우 지능적인 생물이었다는 뜻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2장 1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는 금방 드러나고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가리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의 “교활한”과 같은 단어입니다.  
 좋아, 여기서 멈춰야 해. 그것은 여기에 단순한 동물 이상의 것이 있으며, 지능이 표현되기 때문에 사탄이 동물을 통해 말하는 데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린 존 머레이의 진술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동물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 신중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활한 종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3에서는 매우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동물은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어떤 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을 지닌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여기서 픽업하겠습니다.

각본: Olivia Nee, Emily Outland, Anna Blomber, 편집자 Mary Speta  
 러프 에디터 테드 힐데브란트

최종 편집자 Rachel Ashley,   
 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